



SUBLIMAGE  
LA CRÈME YEUX

눈가의 시간을 되돌리는 수블림 파워

**CHANEL**

CHANEL.COM 고객센터 080-332-2700

# Style 조선일보

APRIL 2017 vol.156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B.zero1*

DESIGN LEGEND by Zaha Hadid

BVLGARI.COM #DESIGNLEGEND



**BVLGARI**  
ROMA





OBJECTS FOR LIFE







Villeret Collection

**I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BLANCPAIN BOUTIQUES**

블랑팡 직영부티크 - 갤러리아 EAST B1층 (02-6905-3367)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02-3213-2261)  
신세계백화점 본점 B1층(02-310-5295)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씨클 (051-745-1350)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3868)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45)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02-6370-4083)

[www.blancpain.com](http://www.blancpain.com)





16



20

Style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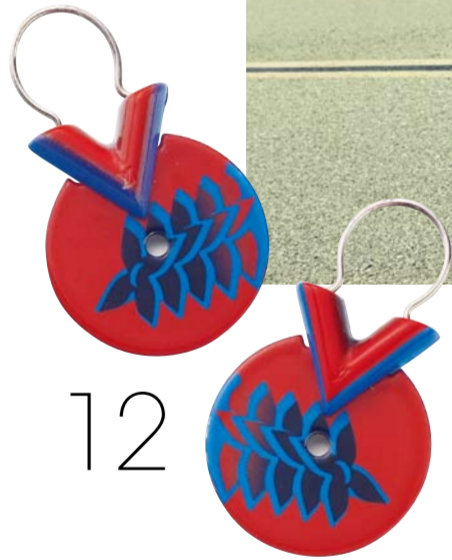


Van Cleef & Arpels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빈클레프 아펠 프라블 클레 선 중 하트 모양 꽃잎에서 영감을 받은 프라블 비드 원 더 핑거 링. 매종의 장인 정신과 독보적인 디자인을 완벽하게 결합해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자태로 손을 돋보이게 한다. 문의 00798-852-16123



22



12

- 16 **ZOÉ OUVRIER** 나무를 깎고 다듬고 그 위에 형상을 새기면서 삶을 재워가고 예술가로서의 영혼을 가꾸는 조에 우브리르(Zoé Ouvrier). 가녀리고 섬세한 듯하지만 강인한 목가적 영혼이 느껴지는 그녀의 매력적인 예술 세계를 소담스러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는 파리 주택에서 마주했다.
- 18 **DREAM RINGS** 화려하고 인상적인 존재감, 우아하고 매력적인 에디티드를 완성하는 볼드 링 컬렉션.
- 19 **DOUBLE FEATURE** 세계 곳곳을 바쁘게 누비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월드 타임 & 듀얼 타임 워치.
- 20 **FEEL THE UNDENIABLE CHARMS** 명차라는 전통을 끈기 있게 이어온 당당한 브랜드들이 신차를 선보이고 있다. 그중 특유의 품격이 묻어나면서 개성이 돋보이는 4개 모델을 소개한다.
- 21 **SKY HIGH** 활동적이고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는 물론, 세련된 멋을 더해줄 당산을 위한 선글라스.
- 22 **THE LONGING**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스프링 드레스, 그리고 나만의 세상을 꿈꾸는 어느 한낮의 달콤한 일탈.
- 30 **PACK IT UP** 데일리 시티 웨어 룩으로도 손색없는, 랭방스프츠만의 심플하고 스포티한 감성으로 풀어진 휴대용 패키지를 시리즈 재킷과 점퍼 아이템을 소개한다.
- 35 **SIMPLY FABULOUS** 중성적이면서도 우아함이 느껴지는 이중적 매력을 담은 사넬 보이프렌드 워치.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리는 이 특별한 워치가 여배우 정려원과 만나 인상적인 순간을 완성했다.
- 38 **ELEGANT EDGE** 부드럽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의 나긋나긋한 여유로움과 브랜드 특유의 우아한 감성이 녹아든 피비어나 필리피 2017 S/S 컬렉션의 이름다운 조우.
- 42 **MAN OF TODAY** 휴고보스와 배우 소지섭이 멋진 도시 남자를 위한 휴고보스의 캠페인 맨 오브 투데이(MAN OF TODAY)에서 오늘날의 남성상을 새롭게 정의한다.
- 44 **SMOOTH STEPS** 플랫 슈즈부터 로퍼, 키튼 힐과 하이힐은 물론, 슬링 백 슈즈와 블로퍼 스타일까지, 올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봄맞이 새 구두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 45 **HEARTS OF LOVE**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주얼리로 표현하는 프레스티지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 올봄,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한 마더스 데이 컬렉션으로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스토리를 완성한다.
- 46 **TRAVEL INNOVATOR** 고급스러운 소재와 혁신적인 기능, 클래식한 품격을 갖춘, 1백40년 전통의 아메리칸 헤리티지 여행 가방 브랜드 하트만(Hartmann)을 만나보자.
- 48 **PINK LADY** 생명력이 느껴지는 봄, 봄꽃처럼 피어나는 사랑스러운 여성미를 얼굴 가득 담아줄 핑크 컬러 뷰티 아이템.
- 49 **TOK TOK** 얼굴뿐 아니라 눈썹과 림, 헤어라인까지, 말 그대로 톡톡 두드려 사용하는 쿠션의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
- 50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뷰티 아이템.

# Style 조선일보

Issue.156 April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권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ambour Automatic Chronograph

LOUIS VUITTON

louisvuitton.com





**Jewel MY DAILY ACCENTS**

매일 착용할 수 있는, 작지만 인상적인 매력을 지닌 데일리 네크리스 컬렉션.

팬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을 연상시키는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 5만 원인데 티파니,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네크리스인 트리니티 루반 네크리스 1천 원인데 카르띠에, 모던한 부채를 고유의 모티프를 담은 4개의 밴드를 합한 클래식 미니 링 원 다이아몬드 펜던트 4만 원인데 루세른, 이코가 진주의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져 미치 음표처럼 느껴지는 벨런스 노트 펜던트 3만 4천 원인데 타사기, 신장한 오렌지색 카블라온을 사용한 아틀레트 드 카르띠에 네크리스 2만 5천 원인데 카르띠에, 자유롭게 회전하는 다이아몬드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포제션 펜던트 7만 원인데 피아제,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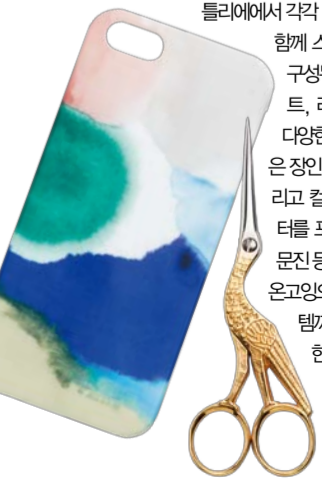
**Fashion MICRO WAVE**

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의 경쾌한 발걸음만큼이나 가볍고 사랑스러운 마이크로 미니 백 셀렉션.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이크로 백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비게트 백, 앙증맞은 눈과 부리, 달랑가리는 드롭 형태의 두 발을 더해 귀여운 미니 몬스터를 완성했다. 16X9cm, 2만 2천 원인데 밴디, 스타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의 송아지가죽 미니 백, 13X8cm, 1만 2천 원인데 발렌티노, 파스텔 핑크 컬러의 로고 모티프가 돋보이는 나노 사이즈 모노그램 버킷 백, 14X16cm, 1만 3천 원인데 루이 비통, 섬세한 자수로 타로 카드 모티프를 수놓은 타로 클라치 백, 18X10cm, 가격 미정 디올, 기존 베스트셀러 7천 원인데 웨이브 백을 마이크로 사이즈로 축소한 마이크로 웨이브 백, 백 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15X12cm, 1만 2천 원인데 토즈, 에디터 권유진



**Hot Spot WELCOME TO SEOUL!**

해외에 가면 꼭 들르는 현지 쇼핑 플레이스, 북유럽 감성의 앤더스토리즈&other stories가 드디어 3월, 한국에 상륙했다! 소식 게다가 아시아 첫 스토어로 한국을 선택해 더욱 의미 있었다. 앤더스토리즈의 매니징 디렉터 사무엘 페른스트롬(Samuel Fernström)은 "서울은 정말 영감이 넘치고 다이내믹한 곳이에요"라며 앤더스토리즈의 볼 컬렉션과 함께 한국 고객들과 스토어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설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구정 플래그십 스토어와 하남 스타필드에 오픈하는 앤더스토리즈는 북부터 언더웨어, 가방, 액세서리, 슈즈뿐 아니라 작구 아이템으로 인기 많았던 할리우드 가격대의 뷰티 컬렉션까지 여성을 위한 폭넓은 레인저의 토털 룩을 전개한다. 특히 기프트 스퀘어는 콘셉트를 새롭게 선보이는데, 이는 피리와 스텝홀름의 아틀리에에서 각각 디자인된 특별한 기프트 컬렉션으로, 트러블 액세서리와 함께 스테이셔너리와 각종 케이스 등 다양한 선물 아이템으로 구성된다고. 먼저 피리 아틀리에 기프트 컬렉션은 블루, 화이트, 레드, 대리셔 프린트와 프랑스의 금박 문양이 돋보이는 다양한 제품이 눈에 띄며, 스텝홀름 아틀리에 기프트 컬렉션은 장인 정신과 창의성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을 담은 아이템, 그리고 컬렉션에 영감을 준 스웨덴의 자령을 인정한 연사와 포스터를 포함해 손으로 빛은 세피리 포트, 둥근 형태의 유리구슬 문진 등 폭넓은 셀렉션을 제공한다. 트렌드 전경에 있는 북부터 은고잉으로 판매하는 뷰티 아이템, 작은 기념품이나 선물 아이템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앤더스토리즈가 한국에서 보여줄 새로운 행보가 기대된다. 에디터 이지연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Focus 디자인의 색채 미학, 화사한 봄웃음 스마트 기기들**

요즘은 트렌드셋터가 아니라도 스마트 기기가 패션의 일부로 작용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기기를 고를 때도 자하디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따라 룩 & 필에 신경 쓰게 된다. 봄이 내릴 팔하는 가운데 편의성 높은 디자인과 화사한 색상으로 단장한 채 유희의 손길을 뻗치는 각종 디지털 기기들의 '스마트 패션 미학' 눈에 들어온다. 오디오 전문 브랜드 보스(Bose)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시리즈인 '사운드링크 컬러'는 아쿠아틱 블루, 코랄 레드, 플라 화이트 등 4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으며 한 번 충전 시 최대 9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고. 소니 코리아의 콤팩트 블루투스 스피커 'XB 시리즈' 중 중경량 라인인 'SRS-XB10(260g)'은 화이트, 블루, 레드, 옐로 등 6가지 색상 스펙트럼을 뽐낸다. 삼성전자가 아심 차게 선보인 스마트워치 '갤럭시 S8' 역시 은은하면서도 신뜻한 느낌의 색상 라인인 '플로이드. 화면의 몰입감을 한껏 끌어올린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베젤을 최소화한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을 적용해 화면 크기가 전작 대비 18% 정도 커졌다는 점을 내세운 갤럭시 S8과 S8+는 미드나이트 블랙, 오크그 그레이, 이크틱 실버, 코랄 블루, 메이플 골드 등 5가지 색상이 있다. 스마트 밴드의 대표 주자 핏빗(Fitbit)의 신제품도 한층 뛰어난 기능은 물론 날씬한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루 종일 지속적인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퓨어펄스(PurePulse)' 기능과 얇은 잠, 깊은 잠, 램 수면 시간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산한다는 '수면 단계' 기능 등으로 무장한 핏빗 알타 HR0R 신제품이다. 클래식 밴드와 알루미늄 베젤이 조화를 이룬 '클래식 트래커, 소프트 핑크 색상과 22K 로즈 골드 트래커 조합, 무광 메탈 조합 등을 갖춘 '스페이스 에디션 트래커, 브라운, 인디고, 라벤더 색상과 그에 맞는 버블로 구성된 '텍스 레더 컬렉션, 다른 패션 주얼리와 함께 착용 가능한 '텍스 메탈 밴드' 등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제품군이 마련돼 있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에 가의 정을 볼 수 있는 <2017 아 리에STORY >**

아티스트가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어떤 식으로 작업에 녹여내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국내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과 함께 그 창작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한 <2017 아틀리에STORY展>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4월 30일까지 열린다. 예술 문화 케이블 TV 채널인 스카이에이앤씨(skyA&C)의 프로그램 '아틀리에STORY' 시즌 3, 4에 출연한 작가들 중 14인의 작품을 관객이 직접 볼 수 있는 전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작가로는 약 5백39만 홍콩달러와 7억6천8천만 원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작품이 판매된 강형구, 제2의 백남준이라는 수식어도 나오고 있는 이남, 런던 테이트 모던 초대전에 참가한 작가 김구림, 서울신촌동화에서 설치된 작품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호평받고 있는 박선기, 타블로 같은 젊은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협업하는 김남표 등 내로라하는 현존 작가들의 작품 1백7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화다면 작품 구매도 할 수 있는 기회다.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휴관일은 4월 24일. 관람료는 성인 1만3천원, 초중고생 1만원, 유아 8천원이다. 문화가 있는 날(4월 26일)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telierstory.c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에디터 고성연



Salvatore Ferragamo





다양한 표정의 스마일 모티프로 장식한, 디자이너 이즈부키와 협업해 선보인 캡슐 컬렉션의 쇼퍼백, 26x35cm, 19만9천원 리코스테.

브랜드 고유의 큐브 패턴이 앞 뒷면에 브랜드 컬러 블루로 나뉘어 짜여져, 총 네 가지 컬러 블루로 나뉘어 짜여져, 30x20cm, 39만 원대 파이프 이브디.

인경과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 있는 가죽 파우치 30만 원대 빌렉스트라.

스포츠 고급 같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의 선글라스 1백만 원대 디올.

브랜드 로고가 인그레이빙된 강철한 레드 컬러 지갑 34만 원 로에비 by 본디삼.

# for her Selection

파릇파릇한 들판과 푸르른 바다로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데일리과 레저 룩을 오가는 스포티 무드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벨벳 모던 핑딩 (다테이) 돌프는 화이트 레디 블루 15만8천원 연상웨어.

앙짌을 떠올리게 하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니트 샷츠 스니커즈 1백22만 원대 켈디.

디자인이 유니크한 블랙 섀플 80만 원대 디올.

화이트 코어 다데로로 두 가지 아웃 레이어를 2차원 3차원 5D는 스트라이프 보퍼 19만 2천 원대 몽클레르.

세련미에 어울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에티카 아메리칸

봄을 상징하는 파릇파릇한 그라운드 컬러로 컬러 섬유로 짠 메시 스니커즈 49만 원대 프리아타.

브랜드 아나셀 V와 시그너처 모노그램 플라워 패턴이 어우러진 브레스 아이어링 84만 원대 루이비통.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디올 02-3480-0104 본디삼 02-2056-1234 켈디 02-2056-9023 연상웨어 02-2007-6965 미우미우 02-3218-5331 리코스테 02-3787-4668 루이비통 02-3432-1854 몽클레르 02-514-0900 프리아타 02-3479-1729 피에르 아디디 02-310-5052 빌렉스트라 02-3438-6196

자수 모티브가 돋보이는 에틀릭 브로케이드 쇼퍼백, 28x40cm, 2백30만 원 구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 (남성) +82 2 3479 1649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여성) +82 2 3479 1619



LEVI DYLAN AND CLARA MCGREGOR [FAY.COM](http://FAY.COM)





간편하게 짐을 챙겨 다니기 좋은, 고급스러운 펠트 소재의 더블 백. 55,88x36,6cm, 63만원 하트만.



스파티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반지 70만원대 다들.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컬러풀한 헤어리깅기 모티브 백 참 48만원대 펜디.



그린 틴트 렌즈 선글라스 30만원대 토리버치 by 루스티카 코리아.

시어링이세팅 아사렛 에티카아저



크리스탈 그레이트 워터를 브랜드만의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시티 크로노 워치 51만원대 켈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 for him Selection

경쾌한 발걸음을 선사할 가벼운 운동화, 일교차가 큰 오후를 위해 하나쯤 챙겨둬야 하는 얇은 인드브레이커 등 본격적인 레저 활동을 앞둔 남성을 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미드솔에 새겨진 시그니처 패턴이 특징인 스니커즈 42만원대 프리미아타.



테니스 선수 모티브를 프린트한 스웨트셔츠 15만원대 리코스테.



블루와 그레이, 블랙 컬러가 어우러진 테크메카노 페브리 소재 스니커즈 60만원대 Z해나.



맑은 하늘색의 가죽 벨트 18만15천원 보스 맨.



무양 레더 블루 & 그레이 투톤 클러치. 29x20cm, 32만원 광원스포츠.



티셔츠 위에 집어삼킬 판하게 걸릴 수 있는 아웃 포켓 디테일 세초 기적 미장 풍클레르 김모 블루.



스트링 매듭과 메탈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 59만원 다들.

다채로운 메탈릭 컬러 스페이스 크로싱이 돋보이는 반지 19만원 코리안스타 북부링.



다양한 패치 장식이 돋보이는 백팩. 25x38cm, 가격 미정 발리.



평상시뿐 아니라 야외 스포츠 활동 시에도 쓸 수 있는 캠프 모자 7만원대 만상웨어.

- 발리리인 1599-0007
- 다들 02-3480-0104
- 펜디 02-2056-9023
- 프리미아타 02-3479-1729
- 리코스테 02-3787-4668
- Z해나 02-3479-6297
- 광원스포츠 02-3438-6252
- 방앤윙클스 02-518-1380
- 보스 맨 02-515-4088
- 풍클레르 김모 블루 02-514-0900
-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 만상웨어 02-2007-6965
- 발리 02-3467-8935
- 하트만 02-3448-5914
- 루스티카 코리아 02-501-4436
-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02-3149-9563

WWW.OBZEE.COM



# OBZÉE



# Zoé Ouvrier

모든 예술 작품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떤 맥락에서든 자신을 잉태시킨 아티스트를 닮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런데 아주 꼭 닮는 경우도 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그 위에 형상을 새기면서 삶을 채워가고 예술가로서의 영혼을 가꾸가는 조에 우브리르(Zoé Ouvrier). 땅속 깊이 뿌리를 뻗었기에 가느다란 줄기로도 모진 바람과 세찬 비를 꺾듯하게 견뎌내는 심근성(深根性) 강한 나무를 닮은, 서정성 짙은 작가다. 가녀리고 섬세한 듯하지만 강인한 목가적 영혼이 느껴지는 그녀가 창조해온 매력적인 예술 세계를 소담스러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작은 정원인 있는 파리 자택이자 작업실에서 직접 마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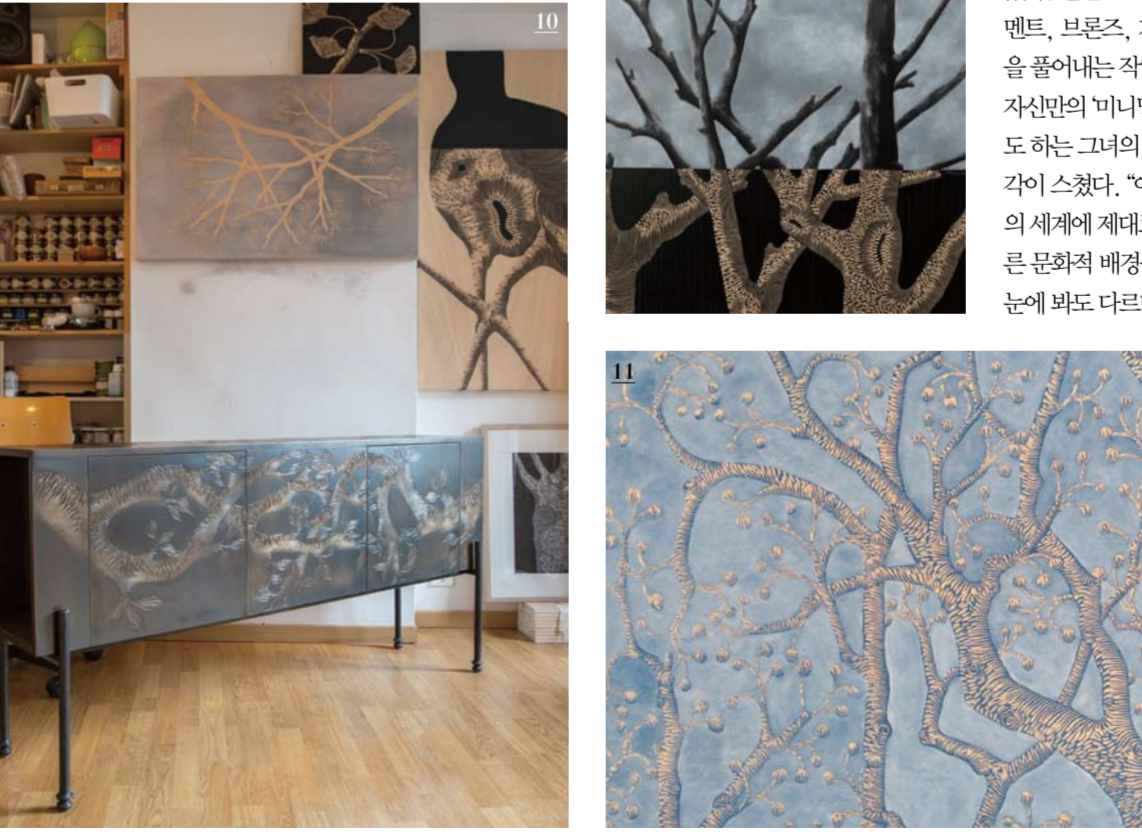
예술가나 각지에서 온 이민자가 많이 모여 사는 파리 북동쪽 20구. 여행자들의 발길 이 잘 닿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로맹 가리의 소설 《자기 앞의 생》의 주인공 모모가 사는 동네인 벨빌(Belleville)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바로 이곳에서 뿌리 깊은 나무를 닮은 목공예 조각가 조에 우브리르(Zoé Ouvrier)를 만났다. 사실 그녀를 만난 계기를 제공한 건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인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를 인터뷰한 자리에서 우연히 조에가 마침 그 근처 자택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즉흥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며칠 전 우연히 조에의 작품집을 보고는 강하게 끌렸던 터라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어린 딸을 태우고 모터사이클로, 필자는 우버 택시를 타고 각각 목적지에 도착했다. 화창한 봄날, 눈이 시릴 정도로 강한 코발트 블루빛 페인트가 돋보이는 건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이 오래된 건물에는 그들의 오붓한 보금자리는 물론 조각칼, 끌, 붓, 망치, 톱날 등 각종 연장과 재료로 가득한 그녀의 아담한 스튜디오, 그리고 다른 이웃 아티스트의 작업 공간도 자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보기운으로 질어저거는 녹음이 싱그러게 느껴지는 소박한 정원이 인상적이었다. 주인을 닮은 듯한 정원이었다. 큰 키에 허리 근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다소 수줍은 표정과 느린 말씨의 소유자인 조에는 딱 봐도 전형적인 파리지연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녀는 남프랑스 몽펠리에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기는 했지만, 자신은 결코 '도시 사람'이 못 된다고 했다. "콘크리트보다는 지렁이에 얽힌 경험담이 더 많거든요. 사실 제 작업도 어린 시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으로 이끄는 소중한 매개체나 다름없어요. 온통 대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환경으로요."

## 자연을 벗 삼아 자란 남프랑스 소녀, 나무 조각으로 정체성을 찾다

조에 우브리르의 부모는 1970년대에 몽펠리에 근처의 시골 동네로 이주했는데, 도처에 관목이 널려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다고 한다. "프랑스 극작가이자 영화 제작자 마르셀 파놀의 소설 《하늘의 생》에 나오는 야성미 넘치는 전원을 떠올려도 돼요. 사람들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고요." 조에의 부모님은 당시 경작을 했지만, 자투리 시간에는 예술 작업도 했고, 그 덕분에 그녀 역시 자연을 담는 스케치를 일삼게 됐다. 그렇다고 딱히 아티스트가 되기를 꿈꾼 건 아니었다. 그저 울창한 나무와 바람, 햇빛 속에서 20년 가까이 자연의 힘찬 생명력을 느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냉동식품이나 방부제 든 음식 같은 건 구경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숲을 거닐거나 강에서 헤엄을 치는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자란 건 정말 행운이었죠." 만 18세가 되자 그녀는 인생의 다른 챕터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파리로 상경했다. 경제적인 원인이 필요했던 그녀는 타고난 장신에 늘씬한 몸매 덕분에 패션 모델로 활동하게 됐고, 수년간 유럽 도시들을 다니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여행 가방을 짐으로 삼은 듯한 시기였다. "나름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동구관에서 물밀듯 밀려 들어온 아름답고 더 젊은 소녀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게 됐다. 그러고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늘 들고 다녔던 스케치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파리의 국립 예술 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 입학하게 되었다.



1, 4 예술가나 각지에서 온 이민자가 많이 모여 사는 파리 북동쪽 20구에 보금자리이자 작업실을 꾸린 조에 우브리르(Zoé Ouvrier). 사진 Franck Juery 2 두 딸의 영미기도 한 조에 우브리르는 시간을 크게 일컫는 전형적인 워킹맘이다. 사진 Proville 3 평범한 합판을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새로운 나무 조각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목공예가 조에 우브리르의 주 분야이다. 5, 10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출신인 조에 우브리르는 어린 시절 벗 삼아 자란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한다. 최근 들어 금속, 가죽,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대체로운 품목을 시도하면서 작업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6 나무줄기의 결이 느껴지는 상세한 이미지로 채워지고 조각된 카우린 수납장. 7 위로 뻗은 나뭇가지들 연상시키는 그림이 인상적인 연하늘색 스크린 'Mikado'. 8 작업실에 놓인 자신의 작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조에 우브리르. 사진 Kirsty Sim 9 자신의 책-책架 이들을 먼 작품 Paz(140X110cm). 사진 Florian Kleinle 11 상세한 자수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 Nicolas(30X50cm).



이후 그림을 그리고, 마침내는 나무 조각 작업을 파고드는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그리 속도감 넘치는 도약을 펼친 건 아니었다. 2002년에 졸업한 그녀가 런던과 파리의 갤러리에서 어엿한 작가로서 전 시를 연 것이 10년 뒤인 2012년이었으니 말이다. 두 아이 엄마로서 가 정도 꾸러오다 보니 다소 느렸을지는 모르지만, 꾸준하고 한결같은 그녀의 행보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빛을 발했고, 유럽은 물론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게 됐다.

## 평범한 합판이 다시 나무로 거듭나, 생명의 근원과 맞닿은 작업

섬세하고 유려한 나무줄기와 껍질, 뿌리, 자유롭게 뻗어나간 나뭇가지의 실루엣, 레이스처럼 촘촘하게 짜인 아름다운 잎새... 주로 평평한 칸막이나 판에 새긴, 팔딱거리는 숲의 생명력을 연상케 하는 '조에 우브리르' 무늬와 이미지는 분명 나무나 그 일부분을 닮았지만 나무의 초상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 그저 자신의 근원을 이루는 대자연의 정수를 정제된 감성으로 담아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의 산실일 따름이나까(난자와 정충, 새 같은 소재도 활용한다). 그래서인지 단순히 추상적이고, 정적인 생명력이 느껴진다. "어릴 때는 언어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어요. 나중에야 그게 성인의 난독증과 비슷한 증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죠." 조각 작업은 그녀에게 삶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나무의 살을 파고 깎는 작업은 제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고통받는 영혼처럼 저를 나무와 동일시하게 되죠." 그렇게 조각 작업을 하노라면 생명의 모체인 여성성으로, 그리고 인간에(humanity)로 인도되는 느낌이라는 게 조에의 설명이다.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시키는 여성성 없는 자상의 어떤 것도 살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각 작업으로 구현해내는 (제 마음의) 풍경은 저를 근원적인 단순함, 여성성으로 이끌고 결국 내적인 평온함을 찾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삶에 대한 에너지와 사랑을 되찾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 작업은 탄생, 삶, 여성성에 대한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녀가 주로 쓰는 재료는 저렴한 합판(plywood)이다. 굳이 비싼 목재를 고집하지 않는 건 그녀의 소박한 성격과 닮았다고 언뜻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런 의도만은 아니었다고. "일종의 형이나 자기주장 같은 선택이었어요. 합판은 인간이 자연에 손상을 가해 만든 재료잖아요. 저는 원래는 위풍당당한 나무에서 비롯된 흔하지 않은 날뻗지를 골라 본인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미모'를 복구해 나무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니, 그녀다운 생각이다.

## 일관된 철학 안에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진화

조에 우브리르의 예술 철학과 감성을 사랑하는 팬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고무된 덕분일까. 그녀의 창조적 스펙트럼은 다채롭게 진화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금속을 활용하는 횡수도 늘어났고, 오브제만이 아니라 커다란 인테리어 월(wall), 수납장 등 다양한 품목에 도전하고 있다. 물론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자연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시도다. 특히 요즘에는 시멘트, 브론즈, 가죽, 심지어는 페브릭 등 갖가지 재료를 활용해 화석화(fossilization) 개념을 풀어내는 작업에 흥미롭게 임하고 있다고. 어쩌면 이런 창조적 진화는 신기술, 신소재를 자신만의 미니멀한 방식과 감성으로 출중하게 녹여내 세계 3대 신업 디자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녀의 남편, 아릭 레비(Arik Levy)에게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아마도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 제가 디자인과 미니멀리즘의 세계에 제대로 눈을 뜨게 해준 건 아릭이예요. 이스라엘 출신인 아릭과 저는 서로 너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지라 기본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요." 실제로 둘의 작품 스타일은 한 눈에 봐도 다르다. 아릭 레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비대칭의 기하학적 이미지를 차용한 구조적 조각물을 빚어내고 사진, 비디오 아트,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천후 크리에이티브인 딸이다. 하지만 이 크리에이티브 부부에게는 확실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바로 '서정성'이다. 아릭 레비는 언뜻 첨단을 걷는 아티스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소설 코드, 감정, 기술적인 영역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 속에 그만의 운율이 담긴 서정성이 묻어나는 작가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테크노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을 테고, 조에 우브리르에게는 목가적인 서정성이 담뿍 배어 있다. **KS 글 고성연**



# dream Rings

화려하고 인상적인 존재감, 우아하고 매력적인 에티튜드를 완성하는 볼드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다양한 크기의 마운트(아진주)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미치 경계구름처럼 사랑스러운 **타사키 진주 & 다이아몬드 링** 4백50만원대. 선인장을 표현한 대형의 디자인의 **까르띠에 라부스 드 까르띠에 링**, 양력적인 매력과 절묘한, 다른 브랜드에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디자인을 미학적으로 풀어낸 독특한 컬렉션이다. 옐로 골드로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선인장꽃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하여 더욱 유니크하다. 17개의 선인장이 있는 모델은 1천4백만원대, 2개의 선인장이 있는 모델은 2천5백만원대. 1945년의 버클링엔드 컷 다이아몬드로 진화하게 장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피아제 로즈 링**, 아름다운 장미 한가운데 활짝 핀 장미를 묘사했다. 2천1백만원대. 신들러링에 흡사하는 양의 꽃잎을 표현한 **반클리프 아펠 프라미 링**, 옐로 골드 꽃잎 위에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수놓아림 하나 하나 세팅했다. 1천1백만원대. 런던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헬렌디 조크와 로라스와 칼라벨리아센에 선보인 **M/G 타사키 링**, 조각감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링을 착용하면 피부에 진주가 직접 닿는 경험을 할 수 있다. 3천500만원대. 아르메디에의 마켓을 이끄는 백조에서 모티브를 얻은 **부쉐르 사피리우스 스완 링 다이아몬드**, 여성스럽고 웅장한 움직임이 아름답다. 4천1백만원대. 올해 창립 1백 주년을 맞은 까르띠에를 상징하는 동물은 판다다. **까르띠에 판다 드 까르띠에 링**은 웅만한 판다의 얼굴을 스크래핀 차체에 매혹적으로 완성했다. 옐로 골드로 세팅한 가벼워진 패턴에 담긴 사랑한 판다의 얼굴이 감동적인 인상을 준다. 2천5백만원대. 별의 외곽 형태를 표현한 반지에 당시 진주로 별이 떠 있는 듯 입체적인 묘사를 더한 **타사키 어보스텍 스타 링** 2천400만원대. 인도코끼리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부쉐르 하티 알파인드 링**, 하티(하티)는 코끼리를 의미하는 힌두어로 영혼을 상징한다. 말티갈라 사파이어와 에미스트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골드와 백색계 세팅한 아름다운 컬러 스톤의 조화가 브랜드 고유의 매력을 드러내는 **반클리프 아펠 루버클리아비트 힌드 퍼핑 링 차보라이트 컬렉션**, 나비가 날다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얼리로 고스란히 담았다. 2천7백만원대.

타사키 02-3461-5588 까르띠에 1566-7277 부쉐르 070-7500-7282 피아제 02-540-2297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왼쪽부터 차례대로) **오메가 씨파스타 플래닛 오션** 플래닛 화이트 컬러의 신형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백과 블랙 세라믹 다이얼의 조화가 유려한 듀얼 타임 워치. 오메가의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선보이는 에디션으로, 특유의 스포츠와 강인함이 매력적이다. 낮과 밤 시계대로 명확하게 구분된 백과로 듀얼 타임을 설정할 수 있고, 3시 방향의 날짜창, 섀도 GMT 핸즈가 특징이다. 600m 방수 기능과 애플 배틀러 장부해 디버 워터로서 완벽한 면모를 자랑한다. 9백만원대. 문의 002-511-5797

**에거 르콜트르 자오피지 워치** 버섯 타임 단 한 번의 간단한 조정으로 원하는 도시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41.6mm 링 크 골드 케이스의 월드 타임 워치. 크라운으로 세계 시간 디스크를 간편하게 이동시켜 분과 시간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이얼에 새겨진 지도 중양에는 1968년 국제지구 물리학의 해를 맞아해 최초로 북극점을 잠수 횡단한 USS 노틸러스 항해를 기념하는 북극 항해를 새겨 더욱 특별하다. 3천1백만원대. 문의 02-6905-3998

**브라게 클래식 오라** 월드 증감적으로 정교하는 기능인 인스턴트-점프 타임 존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적용한 컴플리케이션 워치.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다한 컴플리케이션 워치지만, 시계를 읽는 방법과 듀얼 타임을 설정하는 방식은 매우 쉽다. 작은 원이 달린 작은 레트로그라드 바늘로 날짜를 표시하는 드래진 디스크 날짜창과 함께, 간단하게 버튼 하나 누르면 미리 선택했던 2개의 타임 존이 즉시 바뀌는 인스턴트-점프 방식이 대표적이다. 브라게의 상징인 우아한 달팽이를 새긴 문패와 조와 세련한 지도 모티브에서 브라게만의 남다른 품격이 느껴진다. 9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 Double feature

이 작은 시계 속 세상에서는 파리, 뉴욕, 런던, 두바이, 도쿄 등 어디로든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세계 곳곳을 바쁘게 누비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월드 타임 & 듀얼 타임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피아제 알파리노 루빅** 독특한 쿼츠 세이프의 42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다이얼 위에 조화롭게 배열한 인디케이터가 단연 돋보이는 시계로, 12시 방향에 가득성 줄은 카타린 날짜창, 4시와 8시 방향에 배치한 소울 세컨즈, 주야 인디케이터와 듀얼 타임 존 등 여행자를 배려해 여러 기능을 우아하고 세련되게 드러냈다. 시계 뒷면으로 피아제 자체 제작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860P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4천1백만원대. 문의 02-540-2297

**블랑팡 발랑티 에뉴인 컬렉션의 GMT** 보통 1시간 단위로 구분해 타 지역의 시간을 알려주는 일반 GMT 기능과 달리, 30분 단위로 세팅해 보다 정확하게 시차를 계산해 시간을 보여주는 하프 타임 존 듀얼 타임 워치. 블랑팡 고유 스타일링과 다이얼과 고급스러운 엘리메이티 스트랩의 클래식한 조화가 비즈니스맨의 품격을 더한다. 8시 방향의 시간 인디케이터가 글로벌 타임을 표시하고, 2시와 4시 방향에는 각각 날짜와 월 인디케이터가 자리한다. 4천7백만원대. 문의 02-6905-3367

**몽블랑 4810 오라비스타**를 리마오로 '세계 또는 지구'를 뜻하는 '오라비스타'에서 이름을 따온 이 월드 타임 워치는 24개 도시의 시간을 우아하고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현지 시간의 시간과 분을 조정하면 24개 타임 존의 모든 시간이 연동되어 다이얼 위에 동시에 표시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있든 시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금의 디스크는 밤에는 디스크 블루 컬러로, 낮에는 옐로와 그린 컬러로 바뀌어 대회의 빛과 밤이 바뀌는 모습을 감상하는 묘미를 더했다. 7백만원대. 문의 02-2118-6053 에디터 권유진

시계와 시계줄은 다양한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시계줄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 feel the undeniable Charms

'명차'라는 이름값은 아주 섬세하고 복합적인 요소의 산물이다. 세월을 거치며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와 기술 혁신 역량, 특유의 디자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는 법이다. 올봄에도 명차라는 전통을 끈기 있게 이어온 당당한 브랜드들이 자동차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신차를 선보이고 있다. 그중 프리미엄 자동차 특유의 품격이 묻어나면서 저마다의 개성이 돋보이는 4개 모델을 소개한다.

## '아메리칸 뷰티'를 상징하는 럭셔리 SUV의 매력, 캐딜락 에스칼레이드

수년째 시장을 달구던 SUV의 매력은 좀처럼 시들지 않을 듯하다. 눈길을 거두기 힘든 매력적인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서 상징적인 SUV로 통하는 캐딜락 에스칼레이드(ESCALADE)의 존재감도 단연 두드러진다. 기본형 모델 기준으로 전장 5,179mm, 전폭 2,044mm, 전고 1,889mm, 휠베이스 2,946mm의 대형 차체를 지닌 이 프리미엄 SUV는 거대한 차체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특유의 품격과 오라를 풍긴다. 특히 최상급 모델인 플래티넘에는 최상급 세미야놀리 가죽과 마이크로피이버 내장재, 고급 우드그레인을 적용한다. 또 마치지 기능을 포함한 18방향 전동식 시트와 독립 구동 가능한 3-모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22인치 전용 휠이 포함된다. 차량 정원은 기본 7인승.



## 올봄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의 최고 기대주, BMW 뉴 5 시리즈

7년 만에 풀 체인지(풀 단행)를 단행한 BMW의 아상적 뉴 5 시리즈는 올봄 프리미엄 중형 비즈니스 세단 시장에서 최고 기대주로 일찌감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1972년 첫선을 보인 이래 전 세계적으로 7백60만 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이 동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거머쥔 뉴 5 시리즈는 이전 세대에 비해 커졌지만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29mm, 8mm, 15mm씩 늘어났다(가벼워졌다) 공차 중량이 유럽 기준으로 최대 115kg까지 줄었다. 새롭게 디자인한 새시와 낮은 무게중심, 뛰어난 강성 등으로 보다 역동적이면서도 안락한 주행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 기술에 한 걸음 더 근접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시스템을 적용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나이트 블루(Night Blue), 코냑(Cognac)이 시트 컬러로, 블루스톤(Bluestone)이 외장 컬러로 추가됐고 520d와 신형 엔진을 장착한 530d, 530i 등은 옵션에 따라 이름 가치 다양한 트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 BMW



## 패밀리 SUV의 대표 주자, 랜드로버 올 뉴 디스커버리

지난 1989년 처음 선보인 이래 전 세계적으로 1백20만 대 넘게 팔렸다는 SUV 시장의 강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그 전통을 바탕으로 뛰어난 주행 능력, 극대화된 실용성, 더욱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 등 갖가지 매력을 뽐낸 5세대 모델인 랜드로버 올 뉴 디스커버리가 팬심을 북돋우고 있다. 7인승 인테리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2, 3열 좌석을 무선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시트 폴드(intelligent seat fold) 기능, 방수 기능을 갖춘 손목 밴드 형태의 액티비티 키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해 새시와 파워 트레인을 지형 조건에 맞게 설정해주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를 디스커버리 최초로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 PORSCHE



## 슈퍼카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포르쉐 뉴 파나메라

더 빠르고, 강력하고, 날쌘 기계 미학을 이는 이러한 슈퍼카의 위용을 좀처럼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이 포르쉐라는 브랜드라면 무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 말이다. 그중에서도 럭셔리 세단의 편안한 주행 성능과 강력한 스포츠카의 서킷 성능을 모두 갖춘 4 도어 모델인 포르쉐 파나메라는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데일리 슈퍼카'로 애용된다. 올봄 새롭게 선보이는 신형 파나메라는 차체는 커졌는데 포르쉐의 디자인 아이콘 911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플라이 라인' 덕에 더욱 세련되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자랑한다. 엔진과 변속기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새시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내실을 더 탄탄하게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더욱 강력해진 배터리보 엔진과 더불어 새로운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PDK)을 장착해 연료 효율성과 파워를 모두 충족시켰다(파나메라 티보의 4.0L V8 가솔린엔진은 5백50마력의 출력을, 파나메라 4S의 2.9L V6 가솔린엔진은 4백40마력의 출력을 각각 뽐낸다). 에디터 고성연



# Sky high

푸른 하늘과 광활한 대지를 향해 질주하고 싶은 남자의 욕망을 렌즈에 담았다. 활동적이고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는 물론, 세련된 멋을 더해줄 당신을 위한 선글라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편 왼쪽부터 차례대로) 미블 프린트를 다룬 블루 컬러 프레임 투 브리지 선글라스 73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독특한 다각형 프레임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50만원대 동클레르 by 브라이언 앤 데이비드. 문의 02-3446-8552. 아스테이트와 골드 메탈 더블 브리지를 결합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선글라스 44만원대 Z비 by 새원ITC. 문의 02-3446-8552. 렌즈 사이를 잇는 브리지를 과감히 생략하고, 템플 부분에 가죽을 감은 듯한 포인트를 준, 세련된 스타일의 선글라스 56만원대 토조. 문의 02-3438-6008. 매우 알면서도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는 올렛 메탈 템플을 적용해 한층 스포티한 무드를 자아내는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리디 by 록스타가 코리아. 문의 02-501-4436. 템플 양 끝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삼색 모티브를 다룬 보잉 선글라스 90만원대 톨 브라운 by 나스월드. 문의 02-512-2225. 투명 프레임 안에 렌즈 컬러와 동일한 카카시 프레임이 어우러진 캐츠 아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리베니. 문의 02-6905-3610 에디터 이지연





# The longing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스프링 드레스,  
그리고 나만의 세상을 꿈꾸는 어느 한낮의 달콤한 일탈.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청량한 느낌을 주는 러플  
디테일 드레스 5만8000원  
화이트 스트랩 힐 1만2800원  
모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플라워 프린트가 여성스러운 드레스  
2만9000원 **자갈바티스타 발리.**  
화이트 스트랩 힐 1만2800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핑크 컬러 드레스  
이어링 11만8천원 **정미압루스.**





Los Angeles  
COUNTY LINE



안젤리나 슬리브가 매력적인  
원피스 가격 미정 **자황시** by  
**라카르도 티시**, 블랙 컬러  
앵글 스트랩 힐 1백28만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기하학적 패턴의 드레스  
가격 미정, 볼드한 네크리스  
2백만원대, 벨트 30만원대 모두  
**프라다**, 스트랩 힐 1백60만원  
자황시티스타 발리.







베이지와 골드 컬러의 프린트가 고급스러운 우드를 지어주는 트랜치 코트 1천1백48만원, 블랙 니트 스터렘 힐 1백82만원 모두 렌디.



레드 컬러와 슬릿 디테일이 강렬하고 매력적인 롱 드레스, 블랙 컬러 스텐레드 힐, 초커 모두 가격 미정 크리스찬 디올.





스트라이프 패턴 롱 아우터  
3백30만원, 스트라이프  
패턴 롱 1백20만원,  
페이즐리 무늬 와이드 팬츠  
1백74만원 모두 에트로



카드란 플라워 패턴을 기미한  
트렌치코트 2백30만원, 블랙 니트  
앵글부츠 1백50만원 모두 바버리

헤어 & 메이크업 JENNY O  
모델 양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 자갈밭스타 발리 02-6905-3357
-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 정미양류스 070-8779-5090
- 자한시 by 리카르도 티시 02-517-7560
- 바버리 080-700-8800
- 프라다 02-3218-5331
- 팬디 02-2066-9022
- 에트로 02-511-2572
- 크리스찬 디올 02-3480-0104



**PACKABLE JACKET**

재킷 안의 주머니를 활용해 파우치 형태로 자체 패커블이 가능한 경량 소재의 재킷 아이템.

(왼쪽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 생활 방수와 발수 기능이 있는 가벼운 블레이저 재킷, 차콜 그레이와 다크 그린 컬러로 선보인다. 55만원. 이너로 매치한 라운드 넥 반스매 니트 25만원, 스트레치가 되어 편안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소재의 셔츠형 재킷, 네오비와 블루 컬러로 출시했다. 38만원, 각각 블레이저 재킷과 셔츠형 재킷을 패킹한 파우치, 대담과 고무 차민한 특수 소재를 결합해 스포티한 감성이 돋보이는 사티 캐주얼 백백 52만원, 니트와 네오프렌 소재의 조화가 돋보이며 비스람 술을 사용해 오래 걸어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니커즈 38만원. 모두 랭방스포츠.



*Pack it up*

데일리 시티 웨어 룩으로도 손색없는, 랭방스포츠만의 심플하고 스포티한 감성으로 풀어낸 휴대용 패커블 시리즈 재킷과 점퍼 아이템을 소개한다. 경량의 훌겁 소재로 접거나 작게 말아 넣어 가볍게 휴대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어 출장 혹은 여행뿐만 아니라 가벼운 액티비티를 위해 떠나는 길에 스마트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PACKABLE JUMPER**

가벼운 소재와 디자인으로 휴대하기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꺼내 입을 수 있는 패커블 점퍼 아이템.

(왼쪽 유틸리티 시계 방향으) 방제션을 완벽히 밀봉하는 심 실링 기법을 적용했으며 가벼운 폴리에스터 방수와 발수 기능을 강화했다. 왼쪽 주머니에 패커블 포켓이 내장된 베이식 점퍼, 카키와 화이트 컬러로 만날 수 있다. 62만원. 구김이 덜 가고 끈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성 코팅 소재를 사용해 여름철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점퍼 뒷면에 패커블 포켓이 숨겨진 우비 스타일의 롱 점퍼, 카키와 네이비 컬러로 소개한다. 65만원. 이너로 입은 차이나 스카라 포인트 셔츠 28만원, 수납공간이 넉넉해 여행이나 운동 시 유용하며 고무 차민한 특수 소재로 내구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바건디 색상 토트백 42만원, 고무 차민한 0 킬로아 명품 가죽으로 만든 블랙 슬림은 38만원, 각각 롱 점퍼와 베이식 점퍼를 패킹한 파우치. 모두 랭방스포츠. 문의 02-3438-6252(한남백화점 입구점 본점, 02-6905-3743(갤러리이백화점 WEST점 에디션 이자점)



© sponsored by LANVIN SPORT



HYUNDAI MAIN / HYUNDAI TRADE CENTER / HYUNDAI MOKDONG / HYUNDAI PANGYO / HYUNDAI DAEGU  
LOTTE MAIN / LOTTE JAMSIL / SHINSEGAE GANGNAM / GALLERIA LUXURY HALL WEST WWW.THEHANDSOME.COM



LANVIN  
SPORT



6시 방향에 위치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보이프렌드 워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볼드한 매력을 강조한 M 사이즈다. 보이프렌드 워치와 함께 매치한 다이아몬드 세팅 코코 크러쉬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심플하지만 반짝임을 느낄 수 있는 배어백 디자인의 블랙 드레스 샤넬.

# Simply fabulous

방돔 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한 팔각형 케이스, 중성적이면서도 우아함이 느껴지는 이중적인 매력을 담은 샤넬 보이프렌드 워치.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리는 이 특별한 위치가 여배우 정려원과 만나 인상적인 순간을 완성했다.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 sponsored by CHANEL



브랜드를 대표하는 트윈드 디자인을 접목해 완성한 스트랩이 돋보이는 보이프렌드 워치 트윈드 S 사이즈, 레이아웃을수록 매력이 배가되는 다양한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세팅 배어백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링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레드 컬러 포인트가 돋보이는 캐시미어 카디건 샤넬.





N5 향수병과 방동 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필리핀 베젤은 이 시계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뒷받침이 된 시그니처 디자인이다. 오른쪽 손목에 착용한 보이프렌드 스틸 워치, 동백꽃을 형상화한 부통 드 캐발리아 네크리스, 부통 드 캐발리아 이어링 모두 샤넬 확인 주얼리. 화이트 컬러 트윈드 팬츠 수트 샤넬.



심플한 베이지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보이프렌드 워치 M 사이즈, 옐로 골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코코 크러쉬 미디엄 사이즈 밴드 링 모두 샤넬 확인 주얼리. 파스텔칼라가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트윈드 재킷 샤넬.







샤넬의 시그니처인 팔각형 베젤 주위로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보이프렌드 스틸 워치, 왼쪽 손에 차례로 착용한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링, 오른쪽 손에 착용한, 샤넬이 사랑하는 상징 중 하나인 발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고펀트 링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코트 레이스 소재의 오피 스타드 드레스 **샤넬**.



헤어 이순철  
메이크업 이명선  
패션 스타일리스트 이윤미  
세트 스타일리스트 다락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트윈드 패턴을 더한 블랙 스틸 브레이슬릿에 블랙 기요세 마감으로 마무리한 보이프렌드 트윈드 M 사이즈 워치, 여러 디자인을 다할수록 매력적인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양쪽 손에 레이아웃한 코코 크러쉬 링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실크 크레이프 소재의 블랙 점프 슈트 **샤넬**.  
문의 02-3442-0962





# elegant Edge

여성의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을 품격 있게 표현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 부드럽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의 나긋나긋한 여유로움과 브랜드 특유의 우아한 감성이 녹아든 파비아나 필리피 2017 S/S 컬렉션과의 아름다운 조우.  
photographed by kim hyung sik

스트라이프 패턴을 더한 가법고 유아한 스타일의 모슬린 블라우스와 스커트 각 79만8천원, 1백18만원, 라인 비딩 장식의 천연 소가죽 브레이슬릿 39만8천원, 자수 레이스 패턴을 수놓은 화이트 스니커즈 1백98만원 모두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

세터 스타일링 #사생활(데어) 우드 베이 컬러 (070-7475-4254)



경쾌한 경지무늬를 다한 플로 넥 칼라 디자인의 포폴린 드레스 1백39만원, 라인 비딩과 천연 소가죽을 믹스한 브레이슬릿 39만8천원, 실루엣이 우아한 화이트 모자 53만8천원 모두 파비아나 필리피 (FABIANA FILIPPI).



루스하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선사하는 편칭 디테일의 캐시미어 100% 카디건 1백98만원, 밑단에 라인 비딩으로 포인트를 준 크롭트 플과 사이드 슬릿 디테일의 롱 톱으로 레이아웃 효과를 준 슬리브리스 톱 1백18만원, 뉴트릴 컬러의 팬츠 85만원대, 라인 비딩 포인트의 샌들 95만8천원 모두 파비아나 필리피 (FABIANA FILIPPI).



분화구멍이 울라온 질라 디테일의 100% 테크니컬 코튼 오버 코트 1백98만원, 아이보리·카키·베이지 컬러의 실용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직조해 유근한 패턴을 완성한 보트 넥 스웨터 1백98만원, 중량감이 느껴지는 미디 길이의 와이드 코튼 퀴르토 팬츠 95만8천원, 라인 비딩으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샌들 95만8천원 모두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



트워드느낌의 부드러운 코튼사와 화이트 슬리드 코튼사로 배색 효과를 준 보트 넥 스웨터 1백18만원, 뉴트릴 컬러의 팬츠 85만원대, 여러 줄의 천연 가죽 네크리스에 라인 비딩과 투톤 글라스를 우아하게 늘어뜨려 포인트로 연출한 네크리스 65만8천원 모두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

© sponsored by FABIANA FILIPPI





앞면은 새틴을 연상시키는 상큼한 옐로 컬러의 캐시미어 니트로, 뒷면은 화이트 코튼 니트로 구성된 풀오버 1백18만원, 입체적으로 짜여 유니크한 조직감을 느낄 수 있는 레몬 옐로 컬러 메시 스타치 카디건 1백28만원, 레몬 옐로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데일리드 체크 팬츠 1백92만원, 매듭 패턴에 반짝이는 라인 비딩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미니 숄더백 1백92만원 모두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

헤어 **이혜정**  
메이크업 **이영**  
모델 **NINA**  
스타일리스트 **조윤희**  
에디터 **권유진**

# Italian heritage

이탈리아 움브리아 최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의 모든 제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입어보고 만져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지난 3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에 오픈한 파비아나 필리피 부티크는 브랜드의 가치와 정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이곳에서 파비아나 필리피만의 우아한 이탈리아 감성과 품격을 마주했다.



1, 5 지난 3월에 오픈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3층에 위치한 파비아나 필리피 부티크의 모습. 2 특유의 우아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파비아나 필리피 2017 S/S 광고 비주얼. 3 파비아나 필리피의 시그처 디자인인 라인 비딩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선들. 4 파비아나 필리피 부티크에서는 봄날의 해변가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산뜻한 레몬 컬러와 뉴트럴 계열의 컬러로 가득 한 2017 S/S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6, 7 그랜드 하얏트 서울 프라자 데일리 샵 스위트룸에서 진행한 파비아나 필리피 2017 S/S VIP 스타일링 클래스 현장.



매일 오전 10시부터 VIP 스타일링 클래스 시간 제공 파비아나 필리피

## 'Made in Italy' 최고의 정수를 만나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매장을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면 정중앙에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우아하게 꾸민 파비아나 필리피 부티크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 3월에 오픈한 이곳은 브랜드의 본류인 이탈리아 움브리아에 위치한 파비아나 필리피 본사의 모습을 빼놓은 모던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으로,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와 자연 소재만 사용하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잘 반영한 공간이다. 마치 럭셔리한 이탈리아의 별장에 초대된 듯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품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매장 한편에 꾸민 소파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문 카운슬러에게 스타일링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편안하면서 프라이빗한 쇼핑을 원하는 VIP 고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 가면 파비아나 필리피만의 클래식하고 우아한 감성을 담은 액세서리를 포함해 이지 러셔리 웨어로 이루어진 화이트 라벨,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인 블랙 라벨 레디투웨어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특히 'Made in Italy'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최고급 니트웨어는 파비아나 필리피의 대표 아이템이자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는 백미다. 이를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면 피부에 느껴지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감촉과 몸의 곡선을 타고 흐르는 우아한 실루엣에 감탄하게 될 것. 이는 진정한 이탈리아 니트웨어를 선보이기 위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브랜드 히스토리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프리미엄 소재와 질러,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이기지 않는 파비아나 필리피의 오랜 철학이 빛어낸 결과물이다. 더불어 니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기획부터 제작, 생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탈리아 움브리아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이 브랜드를 상징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처럼 진정한 'Made in Italy'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에, 창립 3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품질 변화 없이 꾸준히 사랑받으며 하이 퀄리티의 여성 의류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파비아나 필리피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와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부티크 오픈과 함께 그랜드 하얏트 서울 프라자 데일리 샵 스위트룸에서 2017 S/S 컬렉션 VIP 스타일링 클래스를 진행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해변가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은 경쾌한 톤의 레몬 옐로, 크리스털 오션 블루 등 포인트 컬러와 함께 뉴트럴 그레이, 화이트, 피치 등 뉴트럴 컬러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편안하면서 잘제된 라인이 돋보이는 구조적인 실루엣의 룩이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의 룩이 데일리 웨어, 비즈니스 웨어, 트러블 룩 등 어느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어울릴 만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이날 클래스에서는 상쾌한 봄여름 컬러로 이루어진 S/S 의상으로 직접 스타일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VIP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2017 F/W 시즌에 선보일 예정인 최고급 퍼 제복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한층 큰 의미를 부여했다. 럭셔리한 감성을 기본으로 웬만한 리어에서 비롯된 1백 년간의 핸드메이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Made in Italy'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브랜드 파비아나 필리피. 그 감성과 품격을 직접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파비아나 필리피 매장으로 향해보자. 파비아나 필리피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포함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경기점·대구점, 갤러리백화점 명품관 EAST·타임월드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 본점·무역센터점·목동점·판교점·울산점·대구점, AK 플라자 본점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60-0839 에디터 권유진





# man of Today

남성적인 매력을 간직한 배우 소지섭이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현대적인 룩을 완성하는 휴고보스(HUGO BOSS) 풀 캔버스 슈트(Full Canvas Suit)를 만났다. 최고의 재단사가 정교하게 재단한 슈트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휴고보스와 배우 소지섭이 멋진 도시 남자를 위한 휴고보스의 캠페인 맨 오브 투데이(MAN OF TODAY)를 새롭게 정의한다.

## 최상의 완성도를 선보이는 휴고보스의 맨 오브 투데이

휴고보스(HUGO BOSS)가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금 가장 멋진 남성상은 무엇인지, 현대적인 매력을 지닌 남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 맨 오브 투데이(MAN OF TODAY) 캠페인의 새로운 얼굴로 소지섭을 선정했다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멋진 배우와 완성도 높은 브랜드가 함께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가 탄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휴고보스와 배우 소지섭의 만남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휴고보스라는 남성복 브랜드에 새로운 금강줄을 자아내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브랜드 가치를 지켜온 휴고보스는 국내에서도 많은 남성들에게 회자되는 브랜드다. 오랫동안 착용해도 멋스러운 클래식 함에 젊은 감성의 브랜드 DNA를 지녀 배우부터 성공한 남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프레시 맨에게도 주목받는 브랜드다. 이렇듯 아이코닉한 남성 슈트 브랜드이자 완벽함을 추구하며, 세심한 배려와 우아함을 상징하는 휴고보스는 오늘날의 남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현대적인 남성을 이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한때는 수영 선수, 패션 모델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정상의 배우가 된 한국의 톱스타 소지섭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이게 되었다. 배우 소지섭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휴고보스의 아시아 앰배서더가 되어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을 함께하기에 더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위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휴고보스의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은 브랜드 핵심 가치를 대변하는 오늘날의 남성상을 정의하는 캠페인이다. 남성복에 관해 오랜 노하우를 지닌 브랜드이기 이러한 캠페인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끔 잊고 지내는 남성의 매력, 남자의 옷에 대한 생각을 일깨운다. 멋스러운 슈트로 몸을 감싸고 남자로서의 매력과 그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캠페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휴고보스 슈트가 완성도 뛰어난 제품이라는 것은 사진 속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착용한 모습이 멋스럽다.

## 배우 소지섭, 휴고보스의 앰배서더가 되다

셀러브리티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이러한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매우 뛰어난 방법이다. 전 세계 각국의 대표 배우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영국 배우인 제라드 버틀러(Gerard James Butler), 중국 배우 왕카이(Wallace Huo)에 이어 국내에서는 소지섭이 이 캠페인을 알리는 모델이 되었다. 소지섭은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의 모델로 발탁되어 2017년 S/S 컬렉션과 F/W 컬렉션의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톱스타의 위치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지섭이 등장하는 휴고보스의 캠페인 이미지와 영상은 꽤나 인상적이다. 서울의 도시 풍경과 유명한 랜드마크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를 배경으로 성공한 남자의 하루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남성적이며 젠틀한 소지섭의 매력이 휴고보스의 새 컬렉션과 모던하게 조화를 이룬다. 캠페인에서 배우 소지섭이 착용한 휴고보스의 풀 캔버스 슈트는 최고의 재단사들이 최고의 고객을 위해 제작하며 브랜드 고유의 정밀한 디자인, 그리고 장인 정신과 DNA를 반영한 최고급 슈트 라인이다. 디테일에 대한 열정과 완벽한 마무리감, 소재에 대한 특별한 휴고보스의 관점이 모두 담겨 있는 아이코닉 컬렉션이다. 독일 메칭겐에 위치한 휴고보스 테크니컬 센터에서 개발한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탄생시킨 풀 캔버스 슈트에는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기술 혁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 가히 예술적 경지와 칭할 만한 첨단 레이저 커팅 기법에 이를 다루는 장인의 능숙한 테일러링이 더해져, 입는 이에게 정교하고 완벽한 맞춤복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어깨선을 타고 내려오는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서도 실루엣에 남성을 담아 슈트를 입었을 때 심플하면서도 단정함의 느낌이 들어 입는 이의 존재감을 부각한다. 풀 캔버스 소재 자체가 몸의 실루엣을 잡아주기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사이즈만 잘 선택한다면 상상 이상의 슈트 핏을 기대할 수 있다.

© sponsored by HUGO BOSS



1 휴고보스의 맨 오브 투데이 캠페인을 위한 앰배서더로 선정된 배우 소지섭. 2 모던한 핏의 내아비 슈트는 보스 맨(BOSS Men) 컬렉션으로 2백만원대. 3 패션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휴고보스의 옷에는 첨단 레이저 커팅 기법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4-6 전통과 혁신을 반영한 풀 캔버스 라인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슈트의 양을 1천만벌 정도로 제한해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한다. 7 정교하고 깔끔한 핏이 매력적인 휴고보스 풀 캔버스 슈트의 그레이 컬러 버전.

## 풀 캔버스 슈트의 특별함

배우 소지섭의 분위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휴고보스의 풀 캔버스 슈트는 사진 속에 표현된 것처럼 깔끔하고 정교한 핏이 생명이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고, 완벽한 장인 정신에 입각한 테일러링까지 더하면 휴고 보스가 규정하는 현대적인 룩이 완성된다. 최고의 재단사들이 만드는, 브랜드 고유의 철학이 반영된 최고급 슈트 라인인 것. 이 슈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집중한 것은 슈트의 핵심 요소인 캔버스다. 슈트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주는 안쪽의 지지대를 캔버스라 부르는데, 슈트 전체적으로 풀 캔버스를 적용하는 기법을 사용해 고객의 보디라인에 완벽하게 맞도록 수작업으로 제작해 일반적인 캔버스 제작보다 2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덕분에 몇 차례 착용한 후에는 더욱더 편안하고 탁월한 유연성과 날렵한 피팅감을 선사한다. 휴고보스의 전매특허인 최고급 이탈리아산 패브릭을 최고의 기술로 코팅하고 핸드메이드 디테일을 더해 브랜드의 DNA인 완벽한 테일러링과 우아하게 몸을 감싸는 옷깃, 부드러움이 특징이다. 개발 단계에서 샘플을 다양한 기후에 노출해 슈트를 서로 다른 기후에서(아시아, 유럽, 북미 등) 착용해도 최고의 핏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 과정에서 모든 원단에 압력 스티밍을 가하며, 그 과정을 통해 풀 캔버스 슈트는 각 환경에 맞게 어우러지고, 완성도가 높아진다. 솔기, 바늘담, 그리고 폴드 하나하나 신중하게 제작해 인간은 완벽하고 편안하게 몸을 감싸주고, 암흑의 활동성과 유연성을 고려해 손바느질로 제작하기에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숙련된 장인의 솜씨는 첨단 기술력을 만나 더 빛을 발하는데, 매 시즌 1천5백 벌 한정 생산하기에 희소가치까지 느낄 수 있다. 천연 캐뮬 헤어로 만든 휴고보스의 풀 캔버스 슈트는 탁월한 신축성과 편안함, 그리고 장인 정신이 담긴 세련된 룩을 보여준다. 사실 휴고보스는 슈트를 입는 남성들이라면 잘 알고 있고, 한 번쯤 착용해보고 싶어 하는 브랜드다. 패션에 대한 기준과 취향이 까다로운 남성들 역시 꾸준히 휴고보스를 찾는데, 풀 캔버스 슈트는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남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특별한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풀 캔버스 슈트는 레굴라와 슬림 핏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되고, 다양한 패브릭과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휴고보스의 브랜드 가치, 풀 캔버스 슈트의 특별한 매력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통해 배우 소지섭이 착용한 더 매력적인 컷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휴고보스 청담점 02-515-4088 에디터 배미진





**Colorful Pop**

(왼쪽 이터부터 시계 방향) 투명한 PVC 소재와 큐브 모양 이터블 소재 할의 조화가 돋보이는 슬링 백 슈즈 73만원 **에밀리오 푸치 by 무이**, 향형색의 알티칼라 스트랩이 돋보이는 올림프 샌들 1백만원대 **에르메스**, 브랜드를 상징하는 더블 T 로고가 매력적인 파이론 레더 로퍼 1백70만원대 **토즈**,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상색 리본 디테일이 포인트인 화이트 로퍼 1백65만원 **틀 브라운**, 플라워 프린트가 돋보이는 오픈 토 슈즈 97만원 **벤디**, 뒤꿈치를 번딩 처리해 로퍼와 슬리퍼 두 가지로 연출 가능한 블로퍼 83만원 **3.1필립핑 by 10 코르소 코모**, 산뜻한 오렌지 컬러가 눈에 띄는 플랫폼 슈즈 69만원 **피에로 이르디**.



# smooth Steps

플랫 슈즈부터 로퍼, 킷엔 힐과 하이힐은 물론,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슬링 백 슈즈와 뒤꿈치를 접어 신어야 더욱 쿨한 블로퍼 스타일까지. 올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봄맞이 새 구두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Decorative Touch**

(왼 위부터 시계 방향) 큼직한 리본 장식과 함께 글라스 펠과 뽀족한 스퀘어 크 장식으로 금에 포인트를 준 청키 힐 슈즈 1백23만원 **구찌**, 스와로브스키로 수놓아 아름답게 빛나는 스틸레토 힐 1백48만원 **지미유**, 칼라풀한 스티드와 화려함을 극대화한 미들힐 슈즈 1백4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해센 소재의 크리스탈 장식 돌 2백60만원대 **로저 비비에**, 플라워 장식 새틴 플랫폼 슈즈 1백92만원 **로사스 by 무이**,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 슬링 백 61만원 **마더 오브 필 by 룬**, 로맨틱한 하트 패턴을 다한 플랫폼 힐 1백10만원대 **프라다**, 에터 **아이젠**

**무이** 02-3446-8074 **에르메스** 02-542-7722  
**토즈** 02-3438-6008 **틀 브라운** 02-6905-3697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피에로 이르디** 02-310-5052 **구찌** 1577-1921 **지미유** 02-3443-9469  
**프라다** 02-3218-5331 **룬** 02-548-4504  
**로저 비비에** 02-6905-3370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벤디** 02-2056-9023



▲ 에르메스 우한형 아이스아트 이터블, 갈수빈

# hearts of Lov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것'을 브랜드의 철학으로 삼아,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주얼리로 표현하는 프레스티지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 올봄,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한 마더스 데이 컬렉션으로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스토리를 완성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삶과 꿈을 담은 특별한 주얼리, 판도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의미 가득 나만의 주얼리로 간직하는 것. 이는 마치 행운의 부적을 남몰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살리는 경이이다. 1982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작은 공장에서 탄생한 판도라 (PANDORA)가 글로벌 프레스티지 주얼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처럼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주얼리에 담는 특별함이다. 국내에서는 나만의 판도라 주얼리와 스타일링 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을 정도로 마-아가 광장히 많은데, 이들 사이에서는 판도라 개미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판도라 주얼리에 한번 빠져들면 어릴 적 동전이나 우표를 모으던 취미처럼 칭(charm)을 수집하는 데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온다. 칭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라, 기념일이나 기억과 싶은 순간을 상징하는 모티브의 칭을 하나씩 구입해 팔찌 전체를 채워나가는 재미와 이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이처럼 판도라 주얼리는 다채로운 칭 모티브와 스타일링 실버, 14K 등 다양한 소재, 엄선한 보석 및 큐빅 지르코니아 등 다양한 스톤으로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판도라를 대표하는 팔찌뿐만 아니라 링, 네크리스, 이어링까지 서로 다른

소재와 디자인의 아이 템을 매치해도 이질감 없이 조화로우며 여러 아이 템을 레이어링할 수 있다는 점이 트렌드하다. 또 젊고 카치한 디자인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유행해 보이지 않고 오래 세련되고 시크한 것도 강점이다. 이는 북유럽의 소박하지만 세련된 감성과 섬세한 핸드메이드 세공 기술을 완성하는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도라 주얼리를 패션 주얼리가 아닌 하이엔드 주얼리라 칭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섬세함의 정수, 마더스 컬렉션**

매년 새로운 컬렉션으로 브랜드의 스토리를 더욱 풍부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판도라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마더스 컬렉션인 하트 오브 러브(Hearts of Love)를 새롭게 선보인다. 듣기만 해도 살리는 아름다운 단어인 '사랑(love)'과 '어머니(mother)'를 주제로 하트 모티브와 가족의 연결 고리를 의미하는 매듭 디테일, 인생에서 중요한 버팀목인 가족을 상징하는 나무 모티브가 한데 어우러진 컬렉션이다. 부러로운 광택이 특징인 스텔링 실버, 14K 골드, 판도라 로즈 등 다양한 소재와 여성스럽고 단아한 진주빛의 화이트 크리스탈 핏을 메인으로 사용해 우아하고 럭셔리한 재치를 드러낸다. 판도라의 시그니처인 참나무 펜던트, 오픈 링, 드럼 이어링까지 다양한 키체고리로 선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모든 피스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완벽한 디테일로 표현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모두 장인의 수작업을 통해 제작하고, 여가 하 이 컬러의 소재와 보석, 혁신적인 기술과 생산 공정을 거쳐 시 간이 차도 변치 않는 클래식함을 선사한다. 이 모든 제작 과정에는 평균 300여 명의 전문가가 동원된다고 하니, 작은 참 하나 하나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술이 필요 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컬렉션에서 주목해 야 할 아이 템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프레시스 하트 칭이다. 반짝이는 스톤으로 둘러싸인 동그란 진주 빛 에-펠 칭에 작고 앙증맞은 2개의 14K 골드 하트 모 티브를 세팅한 제품으로, 판도라의 다른 컬렉션과도 잘 어울리는 필수 아이 템이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주얼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판도라. 올해 새롭게 추가하는 하트 오브 러브 시리즈로 자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추가해보자. 문의 1688-5501 에터블 **권유진**



© sponsored by PANDORA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판도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고 지정한 판도라 매장을 방문하시면 판도라의 상징적인 로고가 새겨진 포켓 미러를 증정합니다.

◆ **증정품** 판도라 포켓 미러 ◆ **기간** 2017년 4월 26일(수)까지  
 ◆ **증정 매장** 롯데백화점 본점·영동점·잠실점,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영동점·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무악센터점·천호점, 스타필드 코엑스점·도심공원점 ◆ **문의** 1688-5501, <http://www.pandora.net/ko-kr>  
 ※ 1인 1매 한정 사용. 증정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Travel innovator

고급스러운 소재와 혁신적인 기능, 클래식한 품격을 갖춘, 1백40년 전통의 아메리칸 헤리티지 여행 가방 브랜드 하트만(Hartmann)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고객의 품격을 담아내는 여행 가방, 하트만 최고급 럭셔리 세단을 정의하는 기준을 이는가? 바로 기능은 최첨단일 수록, 디자인은 클래식할수록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여행 용 트렁크도 마찬가지. 하트만(Hartmann)은 1877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조셉 S. 하트만(Joseph S. Hartmann)이 설립한 브랜드로, 고객의 뛰어난 품격과 요구원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도 느껴져야 한다는 창립자의 철학을 오늘날까지 이어오며 최고급 소재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여행 가방이 지녀야 할 필수 요건인 견고함과 혁신적 기능을 담은 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캐리어를 다양하게 선보여왔다. 지난 1백40여 년간 미국 상류층의 사랑을 받아온 하트만이 1910년대 초반, 미국의 산업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트만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1923년 개발한 워드روب 트렁크(Wardrobe Trunk) 덕분이었다. 캐리어 안에 쿠션 톱(cushion top)을 장착해, 가방 안의 옷걸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안한 제품으로, 여행 중에도 코트 등 옷이 구겨지지 않아 일약 유명세를 탔고, 전 세계적으로 50만 개 이상 팔리는 기록을 남겼다. 단순히 좋은 가방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가방 산업의 혁신을 추구해온 것도 하트만의 자랑이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여행 방식에 따라 새로운 소재와 참신한 디자인을 개발했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해군과 함께 철골보다 뛰어난 성능의 틀을 개발했다. 혁신을 통한 최고의 품질은 린드 존슨, 조지 워커 부시 등 20세기의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재직 기간 동안 하트만 제품을 선택한 이유였다.

독보적인 기술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겸비한 걸작 명품을 판별하는 기준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디테일에 달랐다고 했는가? 하트만은 사용자의 손길이 닿는 캐리어 손잡이와 지퍼 테두리 등에 가죽 디테일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특히 하트만의 모든 가죽에는 벨팅 레더라는 브랜드 고유의 독자적인 가죽을 사용했다. 1939년 무두질을 하는 공장의 기계에 달린 가죽 벨트에서 착안해 탄생시킨 이 가죽은 견고하며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한다. 하트만의 모든 라지 제품은 가죽으로 된 손잡이와 가죽 트래킹 같은 럭셔리한 터치로 품격을 더해 명품 여행 가방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 반면, 클래식한 멋을 담은 외관과 달리 기능적인 면에 첨단 기술이 녹아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먼저 바퀴에 '볼 베어링-미운티드 멀티 휠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 100% 폴리아우레탄으로 만든 바퀴는 4-Way 사이클링이 특징으로, 움직임이 부드러워 걷는 물론, 주행 시 소음도 대폭 감소시켰다. 또 여행 가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납 기능에서도 하트만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팩 시스템' 기술을 적용, 코트나 수트를 옷걸이에 걸어 보관할 수 있는 가먼트 수더, 파우치 등 내부 수납공간을 꼼꼼하게 분류해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뿐만 아니다. 하트만 제품을 구매한 모든 이들에게는 소재나 제조 시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 하트만 매장에서 제품 수선 및 교환이 가능한 월드와이드 품질 보증서를 제공해 더욱 신뢰가 깊다. 이렇게 고급 소재와 혁신적인 기능을 겸비한 하트만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하고 다양해졌다. 문의 02-3438-5914 에디터 **이지연**



## Intensity SPL

외부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0.3mm의 아주 얇은 메탈릭 필름을 코팅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에 하트만의 시그처 가죽인 베지텔 탠드 레더 디테일을 가미해 모던함과 클래식함 모두를 충족시킨다. 톱 핸들과 사이드 핸들, 지퍼 등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천연 가죽을 사용해 품격을 더했고, 이동 시 충격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고급 바퀴 시스템과 한 손으로 손잡이 이동시킬 수 있는 초경량 무게는 인텐시티 SPL이 지닌 또 다른 강점이다. 당신의 여행길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새로운 인텐시티는 골드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왼쪽부터) 인텐시티 SPL 골드 컬러 포켓 20인치 99만원, 인텐시티 SPL 골드 컬러 M 25인치 11백15만원, 인텐시티 SPL 골드 컬러 L 28인치 1백25만원 모두 하트만.

© sponsored by hartmann

## Tweed Belting

1877년 조셉 S. 하트만이 탄생시킨 정교한 수공예 여행 가방의 장인 정신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계승하는 트weed 벨팅 시리즈는 오랜 기간 동안 상류층 여행객들에게 사랑받아온 하트만의 여행 가방 중 가장 상징적인 컬렉션이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클래식한 트weed 소재를 메인으로 벨팅과 트래킹 부분에 가죽을 덧대 기품을 더했다. 두 가지 사이즈의 캐리어 제품과 함께 비즈니스맨 & 우먼을 위한 브리프케이스, 서류를 분리해 넣을 수 있는 플링 토트백 등 실용적인 구성으로 선보이며, 올해 총량 1백40주년을 맞아 블루 컬러를 출시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트weed 벨팅 블루 트weed 비즈니스 토트백 42X34cm 79만원, 트weed 벨팅 블루 트weed 22인치 99만원, 트weed 벨팅 블루 트weed 20인치 95만원, 트weed 벨팅 블루 트weed 실링 백 20X38cm 39만원, 트weed 벨팅 블루 트weed 브리프케이스 43X29cm 79만원 모두 하트만.



## 7R Master

하트만이 선보이는 7R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7R 마스터. 기존 모델의 유니크한 '셸(Shell)'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소재는 최고급 알루미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총 40여 개의 도구와 2백50번 이상의 정교한 수작업 공정을 통해 완성한 것. 특히 캐리어 손잡이 부분에 가죽을 덧대, 손으로 잡았을 때 더욱 편안한 그림김을 제공하며, 바퀴에는 볼 베어링-미운티드 멀티 휠 시스템을 적용해 부드럽고 조용한 이동이 가능하다. 하트만이 지닌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부각하기 위해 알루미늄 보드에 벨팅 레더 트래킹 장식을 더했다. 7R 마스터 퀴츠 컬러 S 20인치 1백29만원, 7R 마스터 퀴츠 컬러 M 25인치 1백39만원, 7R 마스터 퀴츠 컬러 L 28인치 1백49만원 모두 하트만.





# Pink lady

생명력이 느껴지는 봄, 빛처럼 피어나는 사랑스러운 여성미를  
얼굴 가득 담아줄 핑크 컬러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브라운 아이드림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술리 워터 립 트루스트 트리트먼트 잠보 립 펜슬** 사용하기 편리한 통통한 립 펜슬이 미치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촉촉한 립 메이크업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럽다. 스카케어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에게 립 제품 역시 수딩 기능이 뛰어나다. 2.5g 4만2천원. **퐁 포드 뷰티 립 컬러 매트** 모던한 립을 표현하기에 좋은 매트한 텍스처로, 클래시하면서도 우아한 입술을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사랑한 컬러의 일렉트릭 핑크 컬러를 추천한다. 3g 6만2천원. **다올 베르니 라커** 선명하고 러사리한 컬러로 마-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다올의 내입 컬러 중 사랑한 핑크 컬러를 모았다.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684 다이얼로, 강렬한 매력의 877 턴 미 디올 모두 여성미를 드러내기에 제격이다. 각 10ml 3만3천원. **나스 내입 플러쉬 트루블 프랑스 노르망디** 주의 평화로운 어촌인 트루블에서 영감을 받은 유근향 핑크 내입 컬러. 지속성이 뛰어나고 지외선 차단 효과도 있었다. 15ml 2만7천원. **YSL 키스 앤 플러쉬 듀오 스틱** 입술과 볼을 모두 메이크업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밤 타입 아이젠. 피부에 미끄러져서 빛나는 제형이 매력적이다. 사진 속 제품은 여성스러운 매력을 강조할 수 있는 핑크 컬러인 프롤 미 투 유. 5g 5만5천원. **YSL 루주 볼링에 사인** 부드러운 옐링 텍스처로 놀라운 인기를 얻은 편안한 제형의 립 스틱. 발색과 지속력 모두 뛰어나다. 사진 속 제품은 메인 광고 비주얼에 사용된 로즈 생 제르망 컬러. 4.5g 4만3천원. **맥 팝 세도우 브라이트 링크** 30가지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을 위한 세도우 중 열연한 스테디셀러인 선명하고 밝은 푸르샤이 핑크 컬러. 매트하게 표현되는 모던한 세도우. 1.3g 2만2천원. **바버리 뷰티 아이 컬러 워터 앤 드로이 세도우** 가벼운 파우더 질 형태의 포플러가 함유되어 약간의 물기를 더하면 더욱 선명하고 강렬한 컬러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붉은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 훌륭하다. 2.7g 4만원.

(오른쪽 립스 컬러 대리석 유틸리티) **프레쉬 슈가 크림 립 트리트먼트** 스카케어 효과와 립 컬러 효과를 모두 담은 립 트리트먼트 핑크 컬러. 8시간 지속되는 보습 효과에 지외선 차단 기능까지 더해 실용적이다. 10ml 3만1천원. **다올 아딕트 라커 스틱 K-키스 컬러** 다올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피터 필립스가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선보인 드라마틱한 핑크 컬러 립 스틱. 립스틱처럼 보이지만 입술에 닿으면 바로 리퀴드 타입 제품처럼 선명한 광택이 난다. 3.2g 4만2천원. **나스 나스 시스트 2017 스프링 기프팅 치크 플레트 안젤리크 II** 다양한 텍스처의 핑크 컬러 세도를 담은 매력적인 아이젠. 다섯 가지 한정판 블러셔와 한 가지 세도우로 구성해 얼굴 전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핑크 컬러와 어울리는 브론즈 컬러까지 더해 실용적이다. 21g 7만2천원. **바비 브라운 아트 스틱 라퀴드 립** 고급 스틱이라는 내내임이 있을 만큼 촉촉하고 선명한 발색이 매력적인 립 컬러. 사진 속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는 아졸리아 7번 컬러. 5ml 3만5천원. **샤넬 루주 코르도스** 젤리처럼 부드럽게 입술에 녹아내리는 질감이 매력적인 스템용 립글로스. 글로벌 사랑 핑크 립을 연출하고 싶다면 172 턴 데릭스 혹은 738 이우주 부시 컬러를 선택하면 된다. 각 5.5g 4만4천원. **클레드 로 보에 브라쉬 듀오 투드르** 꽃잎처럼 화사하게 피어난 봄을 표현하고 싶다면 미세한 입자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받는 클레드 로 보에의 듀오 치크 파우더를 추천한다. 자연스러운 핑크, 투명하게 빛나는 봄을 표현할 102 체리 블러셔 컬러. 6g 8만2천원. **에디터 베이비진**

맥 02-3440-2782 YSL 080-347-0089 클레드로 보에 02-3438-6032 샤넬 080-332-2700 바비 브라운 02-3440-2781 프레쉬 080-822-9500 다올 080-342-9500 퐁 포드 뷰티 02-3440-2750 시술리 080-549-0216 나스 02-6905-3747 바버리 뷰티 02-6002-3200



(맨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이크업 포에버 아티스트 이크릴립** 립 타입으로 원하는 만큼 양을 덜어 사용할 수 있으며, 폭신한 쿠션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해 얇고 편하게 텍스처와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 적당한 양을 짜서 입술 중앙에 먼저 바른 뒤 가볍게 문지르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연출된다. 립본 아니라 볼에 톡톡 바른 면 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제품. 7ml 3만1천원. 문의 080-514-8942

**바비 브라운 리타칭 워드** 최근에 스틱형 제품을 워드(wand)라 부르는데, 이 제품도 그중 하나로, 컨실러의 높은 커버력, 피부 톤과 결을 보정하는 피운데이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쿠션 스틱이다. 특허 받은 피드먼트 기술을 도입한 젤로 코팅된 원형의 초미세 파우더 입자가 미치 포토삼으로 보정한다. 디크서를 등 피부 결점을 효과적으로 커버해준다. 부드럽고 정교한 스펀지 팁이 내장된 스틱 타입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메이크업 수정 시 원하는 스폿에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3.1g 5만2천원. 문의 02-3440-2781

**베네딕트 포어 미니미징 메이크업** 일명 '모공 커버 쿠션'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모공 축소와 효과적인 비석 추출을 함유해 메이크업 시 유독 모공이 드러나지 보이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베이스 메이크업 첫 단계에 모공이 고인되는 부위에 적당량을 덜어, 함께 내장된 맞춤형 포어 블러링 쿠션으로 톡톡 두들겨주면 피부 표면의 과도한 유분을 잡아주고 눈에 띄는 모공을 가려줘 깨끗하고 보수보충한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해준다. 15ml 4만3천원. 문의 080-001-2363

**다올 다올스누우 볼륨 파렉트 모이스처 쿠션** 화사하고 건강하게 빛나는 글로 스킨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을 위한 쿠션 매트. 스위스 다올 가든에서 자란 애플비스가 함유된 플루이드 타입 텍스처로 피부에 닿자마자 즉각적인 보습감을 주고, 피부 표면의 빛을 화려하게 빛나게 해주는 색상에 화이트 사선 브러시로 눈썹 라인을 짙어 그려준 후, 오른쪽 옆으로 갈색 쿠션에 마스크라 솔사릴 색인 등 형태의 모하란 브러시를 묻혀 눈썹에 컬러를 입혀주면 된다. 두 가지 색상으로 섀도우 자신의 헤어와 눈썹자 세에 따라 고르면 된다. 6g 2만5천원. 문의 080-023-5454

**라네즈 올인원 아이브로우 쿠션**과 신개념 쿠션 타입 브로 제품으로, 쿠션 위에서 양을 조절하기 쉬운 문질 없이 자연스럽게 물들여 브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함께 내장된 서로 다른 세이프의 듀얼 애플리케이션으로 눈썹 라인과 컬러까지 한번에 완성할 수 있는데, 먼저 왼쪽 잔란 브라운 색상에 화이트 사선 브러시로 눈썹 라인을 짙어 그려준 후, 오른쪽 옆으로 갈색 쿠션에 마스크라 솔사릴 색인 등 형태의 모하란 브러시를 묻혀 눈썹에 컬러를 입혀주면 된다. 두 가지 색상으로 섀도우 자신의 헤어와 눈썹자 세에 따라 고르면 된다. 6g 2만5천원. 문의 080-023-5454

**링클 쿠션 블러쉬 샵** 립 쿠션 매트와 같은 디자인으로 내장된 퍼피에 적당량을 묻혀, 도장 쪽들이 가볍게 두드리기만 하면 꽃잎이 물든 듯 생기 있고 화사하게 두 뺨을 물들여준다. 촉촉함이 장시간 쿠션 타입으로 피부 온도를 1.5℃ 낮추는 광선 효과까지 겸비해 양 볼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기존 링클 쿠션 대비 10% 작아지고, 따로 브러시를 소지하지 않아도 돼 휴대하기 간편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정 메이크업에 활용할 수 있다. 7g 5만2천원. 문의 080-001-9500

**퐁 포드 페이퍼트 파니시 립 컬러** 립 글락 펜으로 이루어진, 얇고 긴 립 타입으로 뒷부분을 누르면 '톡 톡' 소리와 함께 알록 스니치 팁에 내용물이 묻어 나온다. 입술 위에 톡톡 묻혀 부드럽게 물들여주면, 마치 입술 위에 컬러를 칠한 듯 선명한 색을 낸다. 립스틱의 발색력과 립글로스의 글로시한 마무리감까지 갖춰, 이 제품 하나으로도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0.81ml 6만2천원. 문의 02-3440-2686

**러 헤어쿠션 헤어라인 세도우** 얼굴에 바르는 쿠션에서 모티프를 얻어 탄생한, 마니슬이 적어 고인된 부분에 톡톡 발라 컬러를 입혀주는 헤어 메이크업 제품. 이마와 헤어라인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면 얼굴이 더욱 작아 보이도록 얼굴 라인을 보정해주며, 기르미나 장수리 부분에 자연스럽게 색을 입혀 민모와 새까지 커버해준다. 얇은 마니슬과 적은 마니슬로 고인된 젊은 여성뿐 아니라, 탈모가 진행되고 새치가 생긴 40~50대 여성의 헤어 고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듯. 7g 3만2천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이지엔**



# Tok tok

얼굴뿐 아니라 눈썹과 립, 헤어라인까지, 말 그대로 톡톡 두드리 사용하는 쿠션의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